

[ 論 壇 ]

# “災害 없는 國土 實現을”

—5月の 災害달에 즈음하여—

## Realizing a land without disaster

崔 榮 博  
Choi, Young Bak

1972年 8月 18, 19日의 大洪水가 생각난다.

이때 周期的인 장마前線에 의한 集中暴雨는 韓半島 到處를 狂亂한 계림라지림 來襲하였다. 이대시 全國 到處에 山沙汰, 築臺崩壞, 土石流(鐵砲水) 및 內水侵水 등의 여러 洪水被害를 가져왔다.

死亡者, 行方不明은 473人을 초과하고 公共施設, 田畝被害 등 物的被害는 約 265億원을 突破하는 60年來의 大洪水로 되었다.

이 被害를 직접 目擊하고 世상 防災, 治山治水 等 國土保全事業의 重要性을 政府當局이나 言論界에서 크게 論議되고, 이에 對한 防災對策이 積極化되었음은 轉禍爲福立場에서 수긍되기도 하였다. 이 大洪水는 「무모하고 災害에 대한 考慮없는 無計劃的인 土地開發事業이 自然과의 밸런스를 破壞한 結果의 所致로서 時間當 30~50밀리정도의 雨量이 되면 崩壞하는 것은 당연한 것. 이것을 미리 豫知하고 防災對策을 施行하지 않은 咎답이었다. 이런 意味에서도 天災가 아니고 人災이다」라는 批判의 소리가 一部 있는 줄 안다. 勿論 3,000年에 1회 있을정도의 “노아”의 洪水와 같은 不可抗力的 洪水가 아니고 100年에 1회, 200年에 1회정도의 防災可能洪水로서 堤防이나 댐이 計劃된 咎답에 宜當論難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다. 여기서 洪水危險地域이나 常習地區가 너무 많은 咎답에 손이 돌아가지 않고 防災治水에 對한 豫算에 限度가 있고 時間雨量 30~50 밀리以上の 集中暴雨이던 現在의 治水施設與件으로는 防災할 수 없다고 天災說을 主張하는 當局의 立場도 理解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一般國民도 災害가 있을 때는 人災라고 하고 避難, 또는 救護를 要請하고, 비가 그치면 언제 災害가 있었으나 하여 그때의 쓰라림을 忘却하고 築臺나 急傾斜地 內水侵水 등의 被害常習地로부터 退去당하는데 惡을 쓴다. 또한 河川改修를 위한 土地購入에도 反對하는 등, 참으로 防災意識이 거의 없는 行爲를 할 때가 많다.

要컨대 우리 國民들이 그날, 그 當場이라는 나쁜 因習에 젖어 있는 마음가짐이 防災에 대한 問題點이 되어 온 것도 確實하다.

생각하건데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國土 이 고장이 洪水 또는 旱魃에 대하여 매우 脆弱하다는 것을 確實히 認識하고 居住하고 있는지 疑心이 될 때가 많다.

要컨대 國民各者의 日常生活에 있어서의 防災意識의 浸透가 중요한 防災對策의 核心인 것 같다.

今年에도 年中行事처럼 걸어야 될 旱魃, 장마, 颶風 등 6, 7, 8月의 물에 因한 災害를 體驗할 것으로 豫想되는바 우리들은 天災, 人災 나아가서 世界的인 異常氣象을 論議하는 것도 좋으나 그것보다도 國土의 體質을 改善하고 認識하여 每年 되풀이되는 水災害의 惡循環에 대한 拔本的인 防災措置를 實施하여 災害없는 國土實現이 緊要하다고 본다.

左右間, 韓半島가 災害에 脆弱한 國土이라고 해서 우리 國民이 여기서 떠나갈 곳은 없고 子子孫孫 여기에 生을 유지할 수 밖에 없으므로, 어떻게 해서던지 安全하고 살기좋은 豊饒한 國土를 造成하는가가 先決問題라고 본다.